교구자치시대, 24교구본사를 가다 ⑪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

조계종은 24곳의 교구본사를 통해 교구 자치를 실현 중이다. 한국불교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전법과 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교구본사 주지 스님을 만나 각 교구의 활약상과 미래를 조명한다. 〈편집자 주〉



법원 스님은… 보광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6년 직지사에서 보성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2003년 통도사에서 보성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한 후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미술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조사국장, 조계종 제16 · 17 · 18대 중앙종회의원, 해웅사 · 선암사 주지를 역임했다. 2023년 11월 제7대 군종특별교구장에 임명됐으며 현재 성남 정토사 주지를 맡고 있다. 사진=박지운 기자

“호국불교 넘어 마음안보 책임지는 교구로”

대담=한명우 대표 · 정리=여수령 기자

군(軍)은 한국불교의 중요한 포교 현장 가운데 하나다. 20대 청년들이 집단생활을 하며 삶과 국가, 공동체를 고민하는 시기인 만큼 종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전국 380여 곳 군법당과 130여 명의 군승을 중심으로 장병들의 신행과 정신적 안정을 책임지며 호국불교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교구다.

2023년 제7대 군종특별교구장에 취임한 법원 스님은 해군 군승 출신으로, 군포교 현장을 누빈 경험을 바탕으로 교구를 이끌고 있다. 지난해 교구 출범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군종교구의 비전과 군불교의 미래를 듣기 위해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가 8월 4일 서울 원광사에서 교구장 법원 스님을 만났다.

Q 3년 가까이 군종교구를 이끌어 오신 소회를 들려 주십시오.

30년 전 군승으로 임관해 군종장교 생활을 했고, 이후 종단에서 여러 소임을 맡았습니다. 그러다 군종교구장 소임을 맡게 돼 그간의 원력과 공부를 회향할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젊은 시절 군 경험이 30년 후배인 군승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현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교구장으로 올 때 은사 스님께서 “군승들 위에 군림하려 하지 말고 후원자와 지원자가 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생이자 후배, 상좌처럼 생각하며 잘못한 이는 보듬고 잘한 이는 격려하려 노력했습니다.

처음 부임했을 당시에는 징계와 민원 등으로 상처가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안정돼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어 보람을 느낍니다.

Q 군종교구는 일반 교구와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군종교구의 정체성과 역할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군종교구는 대한민국 군 안에서 불교를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영역에서 불교의 역할을 수행하는 유일한 조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군 병력은 40만명 수준으로 줄고 있고, 많은 분야가 인공지능과 무인체계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첨단화될수록 더욱 중요한 것은 인간성과 올바른 신념을 지닌 군인입니다.

결국 인성교육과 정신교육이 전투력의 핵심이 되는 시대입니다. 장병들의 마음을 돌보고 가치관을 세우는 군종병과의 역할을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Q 급변하는 군 환경에서 군승에게 가장 요구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불교의 근본 가르침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대와 세대에 맞춰 전법의 방법은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 군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회복탄력성 교육입니다.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인간성을 회복하며 건강한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실제로 많은 지휘관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명상과 상담,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장병들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것이 군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Q 군 조직과 병영문화 변화에 맞춘 새로운 포교 전략도 궁금합니다.

청년들은 강요보다 공감과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불교도 법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명상과 상담,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하도록 해야 합니다. 군이 요구하는 정신교육과 회복탄력성 교육을 불교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Q 지난해 군종교구 출범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앞으로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군은 여전히 ‘포교의 황금어장’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군에서 처음 종교를 만나 인연을 맺습니다. 다만 전법 방식은 달라져야 합니다.

청년들 처음 불교 만나는 포교 場
380곳 군법당 · 130여 명 군승 활약
군 첨단화될수록 ‘마음돌봄’ 중요
명상 · 상담으로 회복탄력성 높여야
호국영령 위령대재 국가 차원에서
군종교구법, 현실 맞게 개정 필요

지금까지는 병사 중심의 포교였다면 앞으로는 간부 중심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합니다. 병 복무기간이 짧아지고 직업군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군 조직을 이끌 간부들을 불자로 양성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Q 최근 불자 장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자 장성의 중요성과 군종교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장병들에게 좋은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지휘관들의 이해와 관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육·해·공군과 해병대에 100명 안팎의 불자 장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개인 신행뿐 아니라 병영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군종교구는 국군불교총신도회와 국군준부사관불자회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매달 두 차례 이상 전방부대를 방문해 장병들과 지휘관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종단 예산과 여러 사찰의 후원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Q 지난해 해외파병부대를 방문하셨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해외파병부대 방문은 제4대 교구장 혜자 스님 이후 제가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파병 장병들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일수록 종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청해부대에서는 수계를 위해 장병들이 매일 108배를 하는 모습을 봤고, UAE 아부다비에서는 사찰 하나 없는 환경에서도 가정집에 모여 법회를 이어가는 불자들을 만났습니다. 군종교구 차원에서 해외파병 장병들을 꾸준히 찾아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Q 6월 호국의 달에 봉행되는 ‘호국영령 위령대재’의 국가 행사 승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산과 행정력이 부족해 행사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종단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며 대표적인 호국불교 행사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순직 장병 유가족들도 초청해 함께 위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호국영령뿐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도 함께 보듬어야 합니다. 종단과 사부대중의 관심이 모여 국가 차원의 대표 추모행사로 자리 잡는다면 위령대재의 위상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Q 군승 수급과 제도 개선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출가자 감소는 군승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 복무와 재임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경험 있는 군승들이 더 오래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여 년 전에 제정된 ‘군종특별교구법’도 현실에 맞게 손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구 출범 당시에는 견제를 위해 최고 의결기구로 상임위원회를 두도록 했는데, 교구가 안정화된 지금은 군법사 보직 배치 때마다 상임위를 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같이 사문화된 법을 개정하고 교구장 선출 방식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안정적인 교구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사부대중께 전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군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리고 그 군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군종병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어려움과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그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종교입니다.

현재 130여 명의 군승이 육·해·공군과 해병대에서 활동하며 380여 개 군법당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곳은 지역 사찰과 포교사들이 함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종특별교구가 장병들의 든든한 정신적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사부대중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6월 19일 영동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열린 제84기 군종사관 임관식에서 신임 군승 5명이 임관했다.



군종교구장 법원 스님은 올해 1~2월 남수단과 오만, 아랍에미리트의 해외파병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군종특별교구와 국군불교총신도회가 6월 20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봉행한 ‘제26회 호국영령 위령대재’.



숙원사업이었던 계룡대 홍제사 건립불사가 올해 4월 마침내 마무리되며 호국불교의 새로운 거점이 탄생했다.



군종교구장 법원 스님과 한명우 현대불교 대표이사가 8월 4일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박지운 기자